



빛 속 산책 광주·전남 지역에 국지성 소나기가 내린 17일 광주시 남구 푸른길공원 대남로 구간에서 우산을 쓴 시민이 산책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립’ 예고·예중...광주 교육숙원 풀리나

장휘국 광주교육감, 김상곤 교육부장관 단독 면담 시교육청 이전·광산청 부활·진로 교육원 설립 등 논의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간 첫 만남이 17일 이뤄지면서 광주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4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그간 광주시교육청 이전과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 광주예술고 국립화 및 국립 예술중 설립, 광주학생진로 교육원 설립 등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으나 중앙정부의 관심 부족과 예산 부족이라는 벽에 부딪히면서 각종 사업추진이 사실상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교육계 안팎에선 이번 만남이 광주 교육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장관과 장 교육감 간 관계가 각별한데다, 교육개

혁에 대한 가치관도 비슷해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김 장관을 단독으로 만나 광주 교육발전을 위한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번 만남은 장 교육감이 평소 절친한 사이인 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은 광주 교육계 안팎에선 다 아는 사실이다.

이들은 광주서중 통창으로, 김 장관은 광주일고와 서울대를 거쳐 대학에 몸을 담았다.

장 교육감은 광주고와 광주교대를 졸업한 뒤 고교 교사로 재직했다. 이들에겐 달

은 점도 많다. 이들은 교육자로서 한평생을 살다가 각각 경기교육감과 광주시교육감에 당선됐다.

무상급식·학생인권조례·혁신학교 등 진보교육감이라는 교육개혁의 가치관이 같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장 교육감은 김 장관이 경기교육감 재직 당시 보수정권에서 시교육청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자, 그 누구보다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장 교육감은 김 장관과 인연을 바탕으로 광주교육 발전에 대한 인식 공유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오랜 숙원인 4대 사업의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육감이 최우선 과제로 내민 현안은 광주예술고 국립화 및 국립 예술중 설립문제다.

현재 공립인 광주예술고는 광주시 북구 매곡동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에 이전할 예정이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으로 전환

하고 국립 예술중학교도 함께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 청사이전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1988년 개청한 이후 조직·인원이 늘어나면서 사무실·회의실·주차 공간 부족난에 시달리고 있다. 또 현 청사는 구조적인 안전성 문제로 증축이 불가능해 청사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광중에 학생진로교육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한 광산교육지원청 원상 회복에 대한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휘국 교육감은 “이날 30여 분 간 (김 장관과) 단독면담을 가졌는데, 광주 교육 4대 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면서 “잘 살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김 장관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

광주 동구 도시재생 속도...학운 2구역 ‘정비구역’ 지정

학동미량마을 도로·주차장 확충

광주시 동구 학운 2구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동구는 “학운동주민센터 인근 학운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난 13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의결돼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공동주택 건립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개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은 곳이다.

학운 2구역은 애초 2014년 6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60억원

(국비 30억·지방비 30억)을 확보하고 지난해 3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다. 지난해 8월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동일사업구역에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과 조합원 사이에 혼선이 발생하는 등 갈등을 지속돼 왔다.

동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역주택조합 측에 여러 차례 안내했으나, 조합측은 토지사용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합원을 모집하고 주택홍보관을 오픈하는 등 사업추진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동구는 지역주민과 조합원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4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최종 결정했다.

학운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학동미량마을에 도로 8개 노선(1368m), 주차장 3개소(1108㎡), 소공원 2개소(203㎡)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김성환 동구청장은 “기반시설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조속한 손실보상과 기반시설정비 공사를 추진해 행복한 정주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

국공립대 전형로 9월부터 인하

전남대를 비롯한 전국 국·공립대학교들이 오는 9월 수시부터 전형료를 인하한다.

교육부는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17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오찬 회동을 하고, 전형료 인하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를 비롯해 전국 41개 4년제 국·공립대학들은 올해 9월 11일 원서접수를 시작하는 수시모집부터 전형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한다.

각 대학은 올해 5월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이미 전형료를 공시했는데 이때보다 소폭 낮출 것으로 보인다. /윤영기기자 penfoot@연남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1 해질 00:48
해짐 19:46 달짐 14:12

폭염 속 소나기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 5~40mm

◇지역별 날씨 (℃)

광주	26/31	보성	구름많음	23/25	
목포	구름많음	25/30	순천	구름많음	26/31
여수	구름많음	26/30	영광	구름많음	24/31
나주	구름많음	25/31	진도	구름많음	25/28
완도	구름많음	26/30	전주	가름흐리고비	25/31
구례	가름흐리고비	24/32	군산	구름많음	23/31
강진	구름많음	24/30	남원	가름흐리고비	24/31
해남	구름많음	25/31	홍산도	구름많음	22/27
장성	구름많음	24/31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	남~남서 0.5~1.5
남해 앞바다	남~남서 0.5	남~남서 0.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남서 0.5~1.5	남~남서 0.5~1.5

◇생활지수

식중독	경고
자외선	높음
피부질환	높음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1:30	08:33
	14:10	21:28
여수	밀물	썰물
	09:55	03:24
	22:29	16:32

◇주간 날씨

19(수)	20(목)	21(금)	22(토)	23(일)	24(월)	25(화)
☀	☀	☀	☀	☀	☀	☀
26/34	25/32	25/33	25/33	25/33	25/33	25/33

본격 무더위...전남 일부 열대야

당분간 광주·전남지역은 낮 최고기온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때때로 소나기도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8일 광주·전남은 서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 등에서 대체로 흐리다 아침까지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17일 예보했다.

광주·전남지역의 18일 예상 강수량은 5~40mm다.

기상청은 또 광주와 전남 지역 10곳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으며,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한영기자 young@

광주 인화학교 ‘장애인 복지’ 성지 된다

2020년까지 인권복지타운 건립...전국 첫 장애인복합공간

옛 광주 인화학교가 장애인 인권복지타운으로 탈바꿈한다.

교직원들의 장애학생 성폭행 등으로 2011년 학교가 문을 닫은 뒤 6년여만이다.

광주시는 17일 장애인 인권복지타운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를 하고 세부시설, 건립규모 등을 마련했다. 옛 인화학교는 영화 ‘도가니’의 실제 무대로 원래 있던 학교는 이전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해 2월 인화학교 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용역 결과 옛 인화학교는 청각장애인 등 모든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등을 아우르는 시설로 거듭난다.

복지타운 내에서 인권과 복지, 문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동을 원스톱(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상됐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개별 복지시설은 있으나 복합기능을 갖춘 공간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장애인 인권을 필두로 인권기념관 건립(18억원), 복지 공간이자 호남권 첫 청각 장애인 시설인 복지관(60억원), 문화공간인 장애인수련시설(180억원), 일자리 창출 공간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화훼시설 등이 오는 2020년까지 들어선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www.namwon.go.kr

광안루원

구룡계곡

백두대간 트리하우스

월매를 사랑한 놀부

남원에촌

남원시의 여가

지리산 물소리에 몸과 마음이 시원~ 우리 가락에 어깨가 들썩입니다

남원시